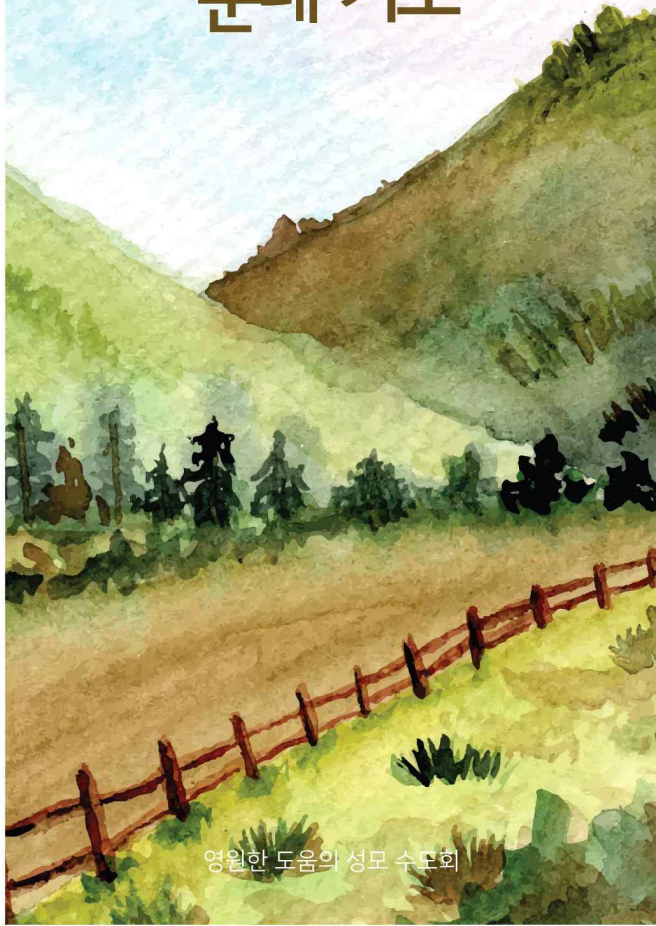




2025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모회





2025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하는  
순례 기도

## 목 차

|                       |    |
|-----------------------|----|
| I. 초대 의 글 .....       | 3  |
| II. 순례 기도 안내 .....    | 4  |
| III. 방문지 안내 .....     | 6  |
| 1. 상수구리 모원 .....      | 9  |
| 2. 관후리 본당 .....       | 13 |
| 3. 기림리 본당 .....       | 16 |
| 4. 서포 본당(서포 본원) ..... | 18 |
| 5. 대신리 본당 .....       | 22 |
| 6. 진남포 본당 .....       | 26 |
| 7. 영유 본당 .....        | 30 |
| 8. 안주 본당 .....        | 35 |
| 9. 비현 본당 .....        | 38 |
| 10. 신의주 진사동 본당 .....  | 41 |
| 11. 신의주 마전동 본당 .....  | 42 |
| 12. 의주 본당 .....       | 45 |
| 13. 상수구리 모원 .....     |    |
| IV. 기도 여정 .....       | 49 |

## I. 초대의 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설립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100주년 설립기념일 미사를

상수구리 모원에서 봉헌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2025년 6월 27일부터

100주년 설립기념일 2032년 6월 27일까지

본회의 역사 안에 수녀들이 파견되었던 곳들을

기도하며 방문하는 순례의 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하는 순례 기도’에**

동참하여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II. 순례기도 안내

### Q1. 순례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특별히 제작한 순례 묵주를 가지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우리 수도회의 과거와 현재 사도직 파견지와 기관을 순례합니다.

### Q2. 순례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2025년 6월27일부터 시작하여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32년 6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우선 2025년 6월27일부터 2026년 6월26일까지 평양교구에 파견된 곳을 순례하고 이후에는 남한에 파견된 곳을 순례합니다.

### Q3. 순례거리와 묵주기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나요?

묵주기도 5단을 하면 1km를 순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평양교구 순례는 총 350km이므로 1750단을 해야 완주합니다.

만일 묵주기도를 매일 5단씩 한다면 350일 기도해야 합니다.

### Q4. 순례지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하는 순례기도’ 소책자를 통해 순례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5. 순례 기도의 결과를 기록하거나 공유하나요?

소책자 49쪽 표에 매일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시와 같이 기록하십시오. 향후 URL 주소를 안내하면 개인의 결과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결과들을 모아 회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순례 여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Q6. 순례기도는 본회 회원들만 참여하나요?**

본회 회원뿐 아니라 성모자매회 회원, 말씀의 봉사자, 가족, 후원인 분들도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평신도들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Q7. 벽돌은 왜 쌓는 것이고, 묵주기도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벽돌은 본회 100주년 설립기념일 미사를 상수구리 모원에서 봉헌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그곳에 성전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릉 본원 성당 규모의 성전 건립을 희망하며 기도로 벽돌을 굽고, 구운 벽돌을 모아 쌓고자 합니다.  
벽돌 한 장은 묵주기도 1단으로 정하였습니다.

**Q8. 구운 벽돌을 어떻게 모으나요?**

소책자 49쪽 표에 예시와 같이 각자 구워낸 벽돌 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향후 URL 주소를 안내하면 벽돌 수를 입력해 주시고, 모아진 벽돌로 건물을 쌓는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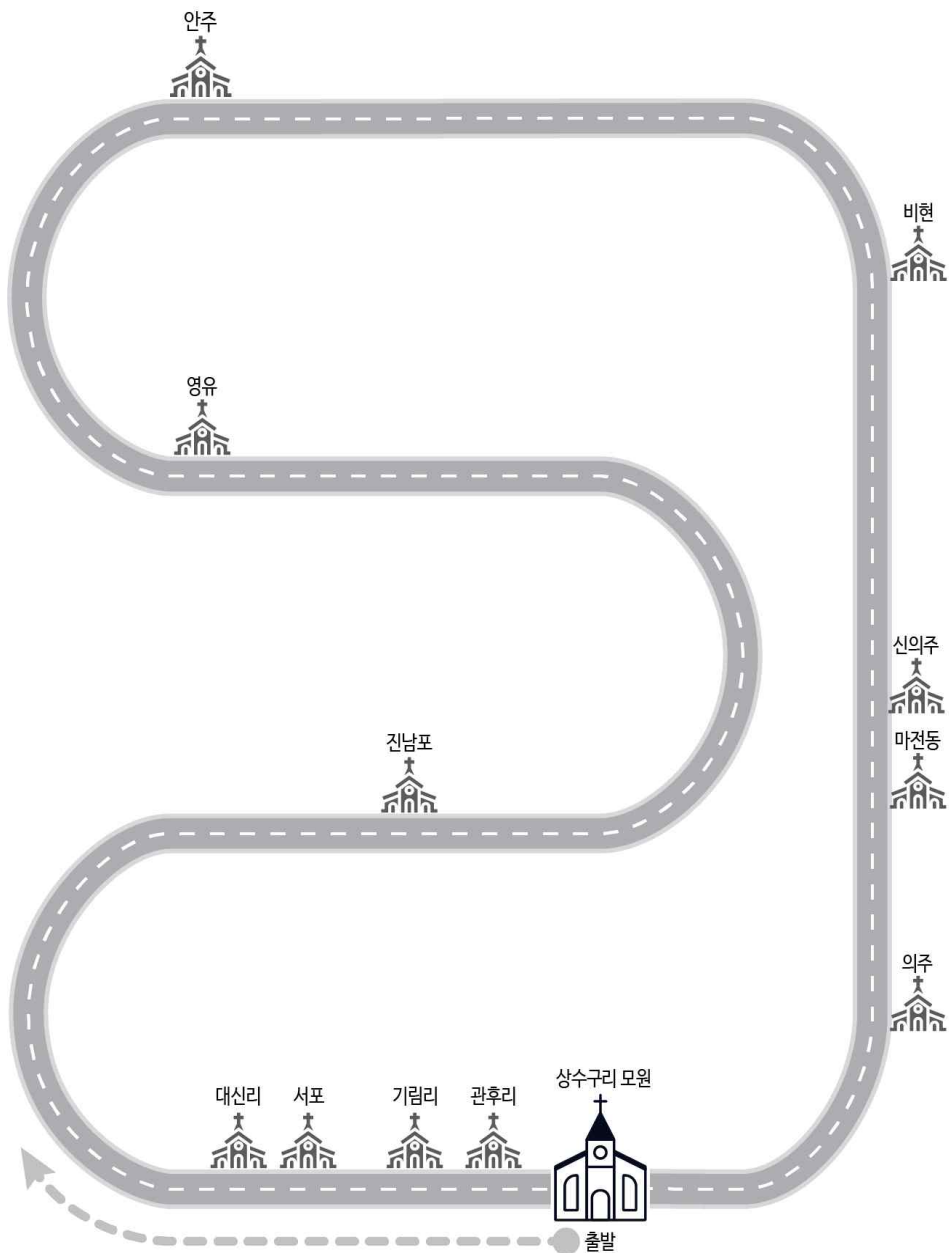
[예시]

| 날짜   | 기도<br>(단) | 거리<br>(km) | 도착<br>본당 | 벽돌 |
|------|-----------|------------|----------|----|
| 6/27 | 5         | 1          |          | 5  |
| 6/28 | 10        | 2          |          | 10 |



### Ⅲ. 방문지 안내

| 방문지             |                             | 거리<br>km |
|-----------------|-----------------------------|----------|
| 1. 상수구리 모원      |                             | 출발       |
| 2. 관후리 본당       | 성모보통학교, 유치원,<br>성모학원, 양로원   | 4        |
| 3. 기림리 본당       |                             | 4        |
| 4. 서포 본당(서포본원)  |                             | 7        |
| 5. 대신리 본당       | 본당 부속 동평학교<br>(초등 교육기관)     | 4        |
| 6. 진남포 본당       |                             | 65       |
| 7. 영유 본당        | 양로원(고아원 병합)                 | 95       |
| 8. 안주 본당        |                             | 40       |
| 9. 비현 본당        |                             | 80       |
| 10. 신의주(진사동) 본당 | 성모의원                        | 30       |
| 11. 신의주 마전동 본당  | 성심학교                        | 4        |
| 12. 의주 본당       | 고아원, 시약소, 양로원,<br>해성학교, 유치원 | 17       |
| 총거리             |                             | 350      |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발자취를 따른 평양교구 순례





## 평양 상수구리 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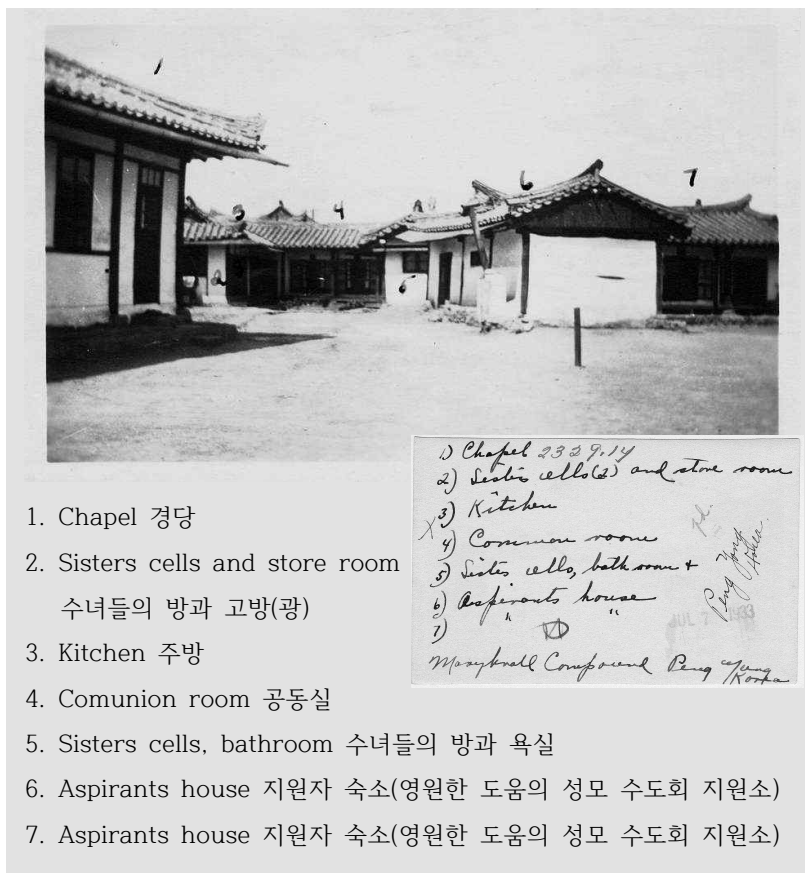
(1932-1942, 1950)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설립: 1932년 6월 27일
- ▶설립자: 존 에드워드 모리스(목이세, John Edward Morris M.M.)  
제2대 평양교구장
- ▶초창기 교육 담당: 메리놀 수녀회 마리아 제노베파 비즈 수녀(M. Genevieve Beez M.M.), 마리아 실베스텔 콜린스 수녀(M. Sylvester Collins M.M.), 프란치스카 헤세 수녀(F. Teresa Hesse M.M.)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설립 당시에 평양시 상수구리는 인가가 드문 곳이었다. 그러나 평양시가 발전한 후 서울의 명동과 비교할 수 있는 평양의 중심지가 되었다. 설립자 목 몬시뇰이 임시로 주임을 맡고 있던 관후리 본당과 상수구리 수녀원은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수녀원 양 옆에는 평양 성모보통학교와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숭의여학교가 있었다.



최초 본방인 수도회의 모원이라고 부르는 상수구리 수녀원은 당시 평양교구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던 메리놀회 수녀들이 1931년 7월 16일 영유에서 옮겨 온 메리놀 수녀회의 한국 지부였으며, 초창기 교육을 담당한 세 수녀 이외에도 메리놀회 수녀들이 함께 거주하였다.



설립 당시 지원자들이 거주한 ‘큰방’이라고 불리던 방에는 부엌이 딸려 있어서 여름에는 아랫목에서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바닥이 뜨거웠다. 이 ‘큰방’은 초기 지원자 9명의 침실이고 전체 식당이며 교실과 휴게실도 되었다.



상수구리 지원자(성모동산)

이곳에서 1940년 제1회 첫서원식을 한 수녀 11명은 본당, 학교, 유치원 등에 파견되어 사도직 활동을 하였고, 입회 전 성모보통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던 강성효 베드로 수녀가 수련장 보좌로 임명되었다.

1941년 12월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이 한국에 있는 메리놀회 신부들을 감금하고 제4대 평양교구장 오셰(William O'Shea M.M.) 주교를 서포 평양교구청에 감금하였다. 메리놀회 수녀들도 감금할 것이란 소식을 들은 오셰 주교는 194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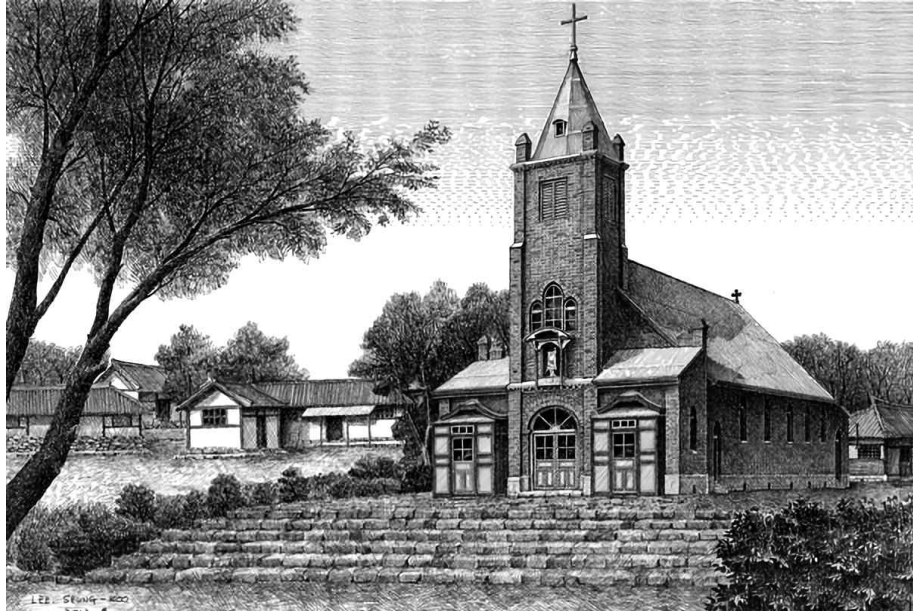
13일 메리놀회 수녀로 당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련장이었던 장정은 악니다 M.M. 수녀를 원장으로, 강 베드로 수녀와 와타나베 스에코 파물라 수녀를 위원으로 임명하여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본방인 수도회가 지도자 없이 해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1942년 6월 1일 미국 메리놀회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고 오세 주교는 서포에 있는 평양교구청이자 메리놀회 한국 지부 건물과 부속 토지 전체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 물려주었다. 그리하여 1942년 6월 3일 수녀들은 모원 상수구리 수녀원에서 서포 주교관 건물로 이전하였다. 그 뒤 수녀들의 거처로 쓰던 상수구리 수녀원 건물은 관후리 본당과 기림리 본당 수녀들의 분원이 되었고 그 밖의 건물은 관후리 본당 소속 양로원으로 사용되었다.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46-48, 73-76쪽 참조



상수구리



[이승구·조명혜 부부의 펜화성지순례 | 평양교구 관후리 주교좌성당 | 2013]

## 평양 관후리 본당

(1896-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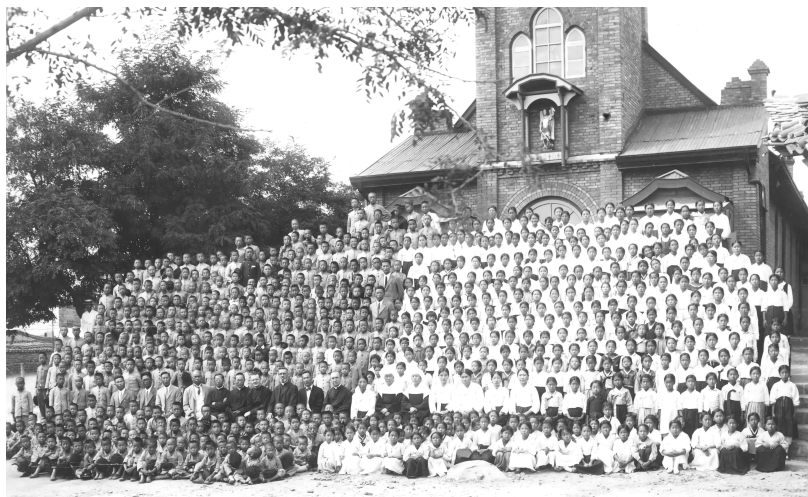
- ▶초대 본당 신부: 최창근(Ludovicus Le Gendre M.E.P.)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분원 설치: 1940년 7월-1950년  
(1943년 10월 상수구리 분원과 통합 후 수녀 파견)
- ▶첫 파견 수녀: 와타나베 스에코 파물라, 서의석 아쿠노, 허영희 코오르,  
나옥련 말가리다, 이영실 알로이시아, 이숙혜 데레사

평양시는 평안남도 도청 소재지로서 평안남도 서부에 위치한다. 대동강 유역에 펼쳐진 평양의 중심지이며 서쪽으로 대동강을 따라가면 진남포 항구에 이른다. 관후리 본당은 평양교구에서 가장 오래된 본당이다. 상수구리 수녀원에서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에 있었으며, 1940년 6월 27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제1회 첫서원식이 오세 주교의 주례로 집전된 성당이다.



1944년 2월 관후리 성당과 부속 건물과 대지 전부를 일본군에게 빼앗기고 교구 본부와 주교관, 수녀원은 경창리 2-13번지에 자리한 교환받은 건물로 이전하였다. 1946년 3월 29일 희생을 감수한 노력으로 옛 관후리 성당을 되찾아 8월 5일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주교좌 대성당 건축에 착수하였다.

**수녀들의 활동과 철수:** 관후리 본당에는 성모보통학교, 유치원, 성모학원, 양로원 등 부속 사업체가 많았으므로 1940년 6월 첫서원을 한 수녀 6명이 7월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들이 파견되기 전까지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들이 본당과 교육 사업, 자선 사업 등에서 30여년간 헌신 봉사해 왔다.



관후리 본당 성모보통학교

수녀들이 보살피던 양로원에는 무의탁 노인들과 젊은이들, 소년·소녀, 장애인 등 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양로원이라기 보다 대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1950년 1월 중순, 수녀들은 갑자기 나타난 정치보위부원들에게 성당과 수녀원을 몰수당하였다. 상부의 지시라며 수녀원을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집은 교우 집으로 옮기고 양로원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는 일하던 그대로 앞치마를 입은 채 한 교우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서포 본원으로 갔다.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388-391쪽;  
『천주교평양교구사』(1981), 307쪽 참조



관후리 첫 성당, 나중에는 수녀원으로 사용



## 평양 기림리 본당 (1940-1949)

- ▶ 초대 본당 신부: 길(Patrick Cleary M.M.)
-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분원 설치: 1948년 1월-1949년
- ▶ 첫 파견 수녀: 강오숙 루갈다

기림리 본당은 관후리 본당이 날로 커지고 평양권 확대에 따라 장차 서평양 지역이 발전될 것을 예측한 교구 본부에 의해 1940년 1월에 신설되었다. 모란봉 바로 밑, 나무가 우거진 언덕에 위치한 조그마한 기림리 성당은 본래 요양원으로 쓰던 건물이었다.

**수녀들의 활동과 철수:** 900여 명의 신자들이 있었던 기림리 본당에는 강 루갈다 수녀가 파견되어 상수구리 분원에서 출퇴근하며 전교 활동을 하였다. 예비자 교리, 가정 방문,

성가 연습, 각종 신심 단체 지도 외에도 주교관과 기림리 본당 및 관후리 본당에서 사용하는 제병 제작, 본당과 주교관의 성당 빨래까지 맡아서 하였다. 성품이 부지런한 강 루갈다 수녀는 연탄불을 사용하는 불편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대제병을 200장, 소제병을 1,000장까지 구워내어 ‘황소 같은 일꾼’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신심 단체 중 15세 이상의 미혼여성으로 구성된 ‘원죄 없으신 성모성심회’는 성가와 교리 공부, 성당 청소 이외에도 상수구리에서 기림리까지 출퇴근하는 수녀를 동반해 주는 활동을 하였다. 도보로 왕복 2시간 거리였으며 성주간에는 밤중이나 새벽에 다닐 때도 있었다.

가을 판공성사에 여념이 없던 이재호(알렉시오) 본당 신부는 사제관을 지키던 청년들이 있었지만 1949년 12월 7일 새벽에 정치보위부원들에 의해 잠옷 바람으로 연행되어 가고 기림리 본당은 목자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본당 신부가 연행된 이후 관후리 본당과 성모학교에 근무하던 서 요셉 수녀, 이 앙네스 수녀, 윤 골롬바 수녀와 함께 강 루갈다 수녀도 상수구리 분원에 한 달가량 연금되었다가 1950년 1월 중순 서포 본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기림리 본당은 본회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설치한 분원으로, 활동 기간도 만 2년으로 가장 짧았다.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412-413쪽 참조



## 평양 서포 본당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서포 본원 (1931-1950)

- ▶초대 본당 신부: 김성학(알렉시오)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지도신부 관할 본당으로 전환:  
1942년 6월-1950년

대동군 중심부인 임원면에 속한 서포역은 평양역에서 북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으로 경의선에서 평원선으로 갈라져 나가는 분기점이다. 평양의 외곽 지대인 서포 지방은 화전(火田)으로부터 시작된 빈약한 농촌으로 인구 밀도가 희박한 한적한 곳이다.

평양교구가 설정되자 방일은(Patrick Byrne M.M.) 초대

교구장은 평양 시내에 교구 본부 설치를 위한 대지를 물색하던 중 장차 평양권이 확장될 경우, 서포가 평양권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교구 본부를 서포에 세울 것을 계획하여 1928년 광대한 토지를 매수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29년 방일은 교구장이 메리놀회 부총장으로 피선되어 교구를 떠나자, 후임인 목이세 교구장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1931년 교구청을 준공하였다.



평양 서포 교구청

서포 성당은 1930년 건축되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인 메리놀회 회원들이 추방되고, 평양교구가 한국인 신부들로 재출발할 때도 성직자가 부족하여 서포 본당은 목자 없는 본당으로 남아 교우들은 평양으로 가서 주일 미사를 참례해야 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서포 본원:** 1942년 6월 2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가 교구 본부였던 교구청 건물을 메리놀회로부터 인수하여 상수구리 모원에서 서포로 이사함으로써 수도회 본원이 되었다(1941-1950 본회 수녀원으로 사용). 수도회 지도 신부가 서포 본당 사목까지 겸하였다. 이로 부터 서포 본당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본원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 일제 치하에서 전시로 인한 갖가지 시련을 극복해야만 했다. 박개봉(요셉) 본당 회장과 임용호(바오로), 그리고 각 공소 회장이 일심동체가 되어 본당 운영뿐 아니라 수녀원 안전에도 최선을 다했다. 일제 말 모든 필수품이 배급제가 될 때 특히 수녀원은 십여 명의 부족한 식량을 확보할 길이 없어 메마른 땅을 개간하여 서투른 잡곡 농사를 짓느라 애썼고, 본당 신자들은 같은 형편에서 식량 보조는 엄두도 못 냈으나 농사짓는 수녀들을 돕는 데에 인색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을 맞은 이후에도 서포 본당은 독자적인 본당 구실은 하지 못한 채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지도 신부가 관할하는 교회로 계속되었다. 1949년 5월 14일 홍용호 교구장이 수도회의 종신서원 예정 수녀들과의 면담 때문에 서포 본원을 방문했다가 행방불명이 된 이후부터 평양 시내 신부들이 계속 체포 연행되어 가고 교회가 몰수되자, 1949년 말부터 1950년 5월 중순까지 평양 시내 신자들은 서포 본당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코자 몰려왔다.

평양교구 전체가 침묵교회가 될 무렵인 1950년 5월 14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가 공산정권의 압력에 못 이겨 해산되고 서포 본원 건물은 압수당하였다. 수도회 지도 신부이자 서포 본당 사목까지 겸임했던 이춘근(라우렌시오 O.B.S.) 신부가 순안 공소로 옮겨갔으므로 서포 본당은 폐쇄되었다.

자료 출처: 『천주교평양교구사』(1981), 397, 401-402쪽 참조



서포 본원



레크리에이션(서포)



## 평양 대신리 본당

(1934-1949)

- ▶초대 본당 신부: 양기섭(베드로)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분원 설치: 1945-1949년
- ▶첫 파견 수녀: 주인숙 엘리사벳, 이영실 알로이시아

평양 본당(관후리 본당)은 넓은 지역과 날로 증가하는 신자들로 인해 교무 집행과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무리가 되었다. 이에 목이세 제2대 평양교구장은 1934년 2월 5일 선교리 본당(대신리 본당) 신설을 발표하였다. 1934년 9월 새 성당이 준공되고 교회 소재지 지명이 변경되어 신리 본당이라 부르게 되었고 후에 다시 대신리 본당으로 개칭되었다.

이미 1936년경부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상수구리 모원에서 청원자들이 주일마다 이 본당에서 나와서 첫영성체 교리를 지도하는 등 사목 실습을 하였다. 1940년 6월 27일 제1회 첫서원식이 있고 난 뒤는 이숙혜 데레사 수녀와 이영실 알로이시아 수녀가 모원에서 출퇴근을 하며 본당 일을 돕기도 하였다.



대신리 본당

**수녀들의 활동과 철수:** 수녀들이 맡은 소임은 예비자 교리, 신심 단체 지도, 가정 방문, 제병 제조, 초 제작 등이었다. 1946년 2월부터는 본당 부속 동평학교(초등교육기관) 교원을 겸임했다. 수녀들이 지도하던 신심 단체는 매괴회(묵주기도회), 소화 데레사회, 성모회, 미사회, 성가대 등이 있었다.



초등교육 기관인 동평학교

1949년 공산당의 교회 탄압이 날로 심화할 때도 박용옥(디모테오) 본당 신부는 매일 성체강복과 저녁기도를 합송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성모 신심이 지극하여 5월에는 성모상을 꽃과 촛불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매일 성모성월 기도를 바치고 성체강복을 하였다. 얼마 후 박용옥 신부와 신학생들이 공산당에 폭행을 당하고 납치되었고, 수녀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석 달 남짓 신자들과 함께 목자 없는 교회를 지켰다.

수녀들은 감금되었다. 이런 수녀들이 불쌍하다고 콩나물을 사서 오던 신자 할머니가 혼이 나고 쫓겨 간 후부터 외부와의 소식이 끊어진 채 얼마를 지냈다. 수녀원에 찾아오는 사람은 잡히므로 신학생 집 담은 수녀들이 소식을 전하고

듣는 유일한 연락처였다. 이러한 생활을 하던 중 본원에서 서원 갱신일이 다가오는 이 바오로 수녀에게 서원 갱신을 미리 하라는 간단한 소식이 왔다. 캄캄한 온돌방에서 한동안 울음을 참으며 촛불을 준비하고 이 바오로 수녀는 김 린다 수녀 앞에서 서원을 갱신하였다.

공산당원들이 성당과 건물을 모두 압수하던 1950년 2월 어느 날 드디어 대신리 분원을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 김 린다 수녀와 이 바오로 수녀는 몇몇 교우들과 그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택시를 타고 서포 본원까지 왔다. 교우들은 원장 수녀에게 평화가 오면 다시 수녀들을 보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고 돌아갔다. 같은 해 10월,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면서 본당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고, 대신리 분원이 재개원 되었지만, 12월 다시 피난해야 했다. 대신리 분원은 남하하던 날까지 수녀들이 남아 있던 곳이다.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402-406쪽;  
『천주교평양교구사』(1981), 319, 326-327쪽 참조



## 진남포 본당 (1900-1950)

- ▶ 초대 본당 신부: 방(Johannes B. Faurie M.E.P.)
-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분원 설치: 1946년 2월-1950년
- ▶ 첫 파견 수녀: 오귀봉 다위, 임경주 켄마, 김연순 프란치스카

평안남도 서남쪽 끝 대동강 변을 따라 평남선 철도 종점에 이르면 진남포 항구이다. 진남포는 남쪽은 대동강을 경계로 황해도에 접하고 일면은 바다이고 삼면은 산언덕과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분원이었다.

1908년 건축비 4천여 원을 들여 벽돌조와 목조를 혼합한 것으로 보이는 성당을 준공하였다. 1933년에는 800명 수용 규모의

벽돌조, 목조 트러스 구조, 한식 기와지붕과 종탑이 있는 성당을 신축하였다(신의주 성당과 유사한 구조 및 형태를 취했다).

**수녀들의 활동과 철수:** 오 다위 수녀는 유치원, 김 프란치스카 수녀는 양로원, 임 켄마 수녀는 본당 활동을 맡아 국토가 남북으로 양단된 어수선했던 시국에서도 억눌렸던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침체하였던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목자 없는 교회 유지 및 운영에 대비할 자치위원회가 있었다. 사도직 단체는 청년들로 구성된 선교 목적의 명도회가 있었고 40세 이상의 부녀들로 구성된 ‘성부 안나회’는 개인 성화와 제전비 부담, 신학생 후원 등을 담당하였으며 임 켄마 수녀가 지도하였다. 그 외에도 청년회, 임마꿀라따회 등이 있어 각 계층의 신자들이 본당 신부와 수녀를 중심으로 교회 발전을 위해 끝까지 협력했다.

1946년 12월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총선거 때에 진남포에서 반대표가 2표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오 다위 수녀의 것이라 하여 유치원은 폐원되고 말았다. 무의탁 노인, 장애인, 고아들까지 수용하고 있던 성가 양로원은 식량으로 나오는 배급 쌀 이외의 모든 것은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이지만 합심하여 짚신 삼기, 학생들의 머리 깎기 등으로 간신히 유지되어 오다가 1950년 양로원도 폐쇄되었다.



1949년 5월 14일 홍용호 주교가 납치되면서부터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박해는 가속화되었고 홍용호 주교의 비서 겸 경리였던 조문국(바오로) 신부가 본당 신부로 있던 진남포 본당은 박해가 더욱 심했다.

1950년 4월 어느 날 성당은 몰수당하고 양로원도 폐쇄되자 조문국 신부는 나 요셉이라는 신자 집으로 갔고 수녀들도 헤어지게 되었다. 오 다위 수녀는 성당 바로 아래 살고 있던 김 릿다 수녀의 본가로 갔는데 이때 김 릿다 수녀도 집에 와 있었다. 임젬마 수녀는 신의주 본가로 갔고 김 프란치스카 수녀는 서포 본가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매일 미사는 김 릿다 수녀의 집 안방에서 거행되었다. 서포 본원이 몰수당한 후 선교리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은신하고 있던 장정온 약니다 M.M. 원장 수녀가 더는 병원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오 다위 수녀는 1950년 6월 1일 본당 신부가 있던 진남포 본당으로 모셔 왔다. 신자들의 철통같은 보호망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4일 자정이 조금 지나 조문국 신부는 잠옷 바람으로 연행되었다.

1950년 6월 29일 장 약니다 원장 수녀는 평소에 조문국 신부가 말하던 대로 평양으로 나가 강성효 베드로 수녀에게로 갔다. 진남포에 남아 있던 오 다위 수녀와 김 릿다 수녀는 사태가 악화하여 김 릿다 수녀 모친의 도움으로 성당의 주요 서류와 성물을 챙겨 진남포에서 15리 떨어진 갈천 공소로 피난을 떠났다. 얼마 후 진남포로 돌아와 있을 때 정치보위부에서 두 수녀



진남포 성당의 교육 기관인 돈의학교

를 찾고 있다는 연락이 있어서 순교의 때가 온 줄로 알고 죽음을 기다렸으나 주님께서는 두 수녀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

1950년 10월 19일 국군과 UN군이 평양에 입성하자 서둘러 재건에 착수한 본원에서는 목자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 각 분원에 수녀들을 파견하였으며 오 다위 수녀와 김 프란치스카 수녀가 진남포 분원으로 왔다. 그러나 다시 국군과 UN군이 후퇴하자 위험을 느낀 수녀들은 평양으로 모였고 12월 2일 남하하게 되었다.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409-412쪽;

『천주교평양교구사』(1981), 342, 345-346쪽 참조



## 영유 본당 (1902-1950)

- ▶ 초대 본당 신부: 명(Johannes Meng M.E.P.)
-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분원 설치: 1942년 6월-1950년
- ▶ 첫 파견 수녀: 이영주 안드레아, 강민호 벨라뎃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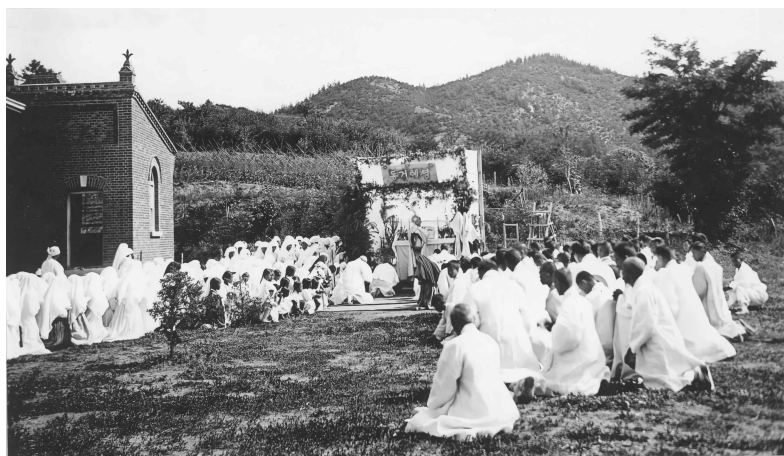
영유읍은 경의선 어파역에서 6킬로미터 떨어진 평원군 중심지로서 동쪽에는 높이 솟은 동창령과 임진왜란 당시 선조대왕이 난을 피해 의주로 행차하던 중 이곳에 들러 이름을 붙여 준 학사대와 망복산이 남북으로 병풍처럼 둘러 있고 서쪽에는 옥야가 펼쳐져 있다.

1902년 한옥을 구입하여 임시 영유 성당을 설립하였다. 교세

확장으로 인해 1924년 7월 착공, 50여 명의 청국인 인부를 고용하여 1925년 벽돌 조적조, 목조 트러스 구조, 종탑을 갖춘 성당을 완공하고, 1926년 5월 4일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수녀들의 활동과 철수:** 수녀들은 일본인들의 탄압이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본당 신심 단체 지도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고아원까지 병합된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보살폈다. 양로원에는 10여 명의 남녀 노인들이 있었는데 결핵 환자도 있었다. 수녀들은 교우들이 얻어다 주는 약으로 그들의 치료를 돕기도 했고 열심한 신자들은 그들의 빨래를 해 줌으로써 수녀들의 일손을 덜어 주기도 하였다.

수녀원 건물은 메리놀 수녀회가 1927년 한국에 진출하여 한국 지부로 사용하던 3층 건물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성체거동



큰 집이었다. 두 수녀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고 뒤쪽은 산이어서 무섭기도 하였다. 모두가 배급 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인데도 신자들은 수녀들의 식량을 염려하여 쌀을 조금씩 가져다주었다. 수녀들은 나물과 시래기죽으로 연명하는 본원의 수련자들이 생각나서 쌀을 조금씩 절약하여 몇 뒷박씩 허리에 띠고 가져다주곤 했다. 이때는 기차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든 식료품이 발각되면 즉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1949년 12월 11일 밤 11시쯤 홍도근(요한 세례자) 본당 신부는 비서를 시켜 수녀들을 성당에 들어오라고 했다. 장 임마쿨라파 수녀와 박 데레시다 수녀가 급히 성당으로 가니, 본당 신부는 수녀들에게 성체를 영해 주고 감실을 비운 다음 잡혀갈 때가 왔음을 알려 주었다. 이어 수녀원 주방으로 와서 서원 기한 만기일이 가까운 김 글로리아 수녀의 서원 갱신을 받아주었다.

본당 신부는 12일 새벽 공산당에 납치되었다.

1950년 4월경 수녀들은 평북으로 바꾸어 입고 본당에 남아 있었는데, 내무서에서 본당 회장을 매일 불러들여 교회 재산을 희사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결국 6월 26일 성당과 사제관, 수녀원, 양로원 등 부속 건물 일체를 몰수당했다. 마지막까지 목자 없는 교회에서 신자들과 양로원 노인들을 돌보던 허 코오르 수녀와 박현선 데레시다 수녀는 본원도 이미 해산된 때이므로 각각 평양 본가로 갔다. 박 데레시다 수녀는 후에 신의주로 갔고 그 후 소식은 모른다.

1950년 10월 19일 국군과 UN군이 평양에 진군하자 연락이 닿은 수녀들이 평양 상수구리 모원에 모여 복구 사업을 서둘렀으며 군종 신부들이 부임하는 본당에는 수녀들이 재파견되었다. 영유 본당에는 신부가 부임하지 못했지만, 허 코오르 수녀와 변대옥 헬레나 수녀가 파견되어 신자들을 위로하며 본당을 복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곧 전세가 불리해져 국군이 후퇴하게 되자 허 코오르 수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1950년 12월 1일 본원에 알아보기 위해 평양 상수구리로 떠났고, 영유 본당에는 변 헬레나 수녀 혼자 남아 있었다. 4일 후 변 헬레나 수녀가 영유에 혼자 4일간 남아 있다가 서 아퀴노 수녀 삼촌과 함께 상수구리 수녀원으로 왔으나 이미 모두 남한으로 떠난 뒤여서 몇몇 교우들과 함께 남하하여 1950년 12월 16일 부산 메리놀 수녀원에 도착하였다. 변 헬레나 수녀가 남하 당시 강성효 베드로 수녀 언니



덥에 맡겨 둔 수녀원의 귀중한 문서 일부를 가지고 내려와서 현재까지 남아 있게 되었다. 특히 6.25 전날까지 영유 본당을 지키던 박 데레시다 수녀가 기록한 눈물겨운 ‘홍 신부의 납치기’는 북한에 남은 수녀 중 유일하게 남은 친필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397-401쪽;  
『천주교평양교구사』(1981), 408-411쪽 참조



## 안주 본당 (1930-1950)

- ▶초대 본당 신부: 반(Edward Barron M.M.)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분원 설치: 1944년 8월-1947년 12월
- ▶첫 파견 수녀: 이금주 양네스, 윤보순 골롬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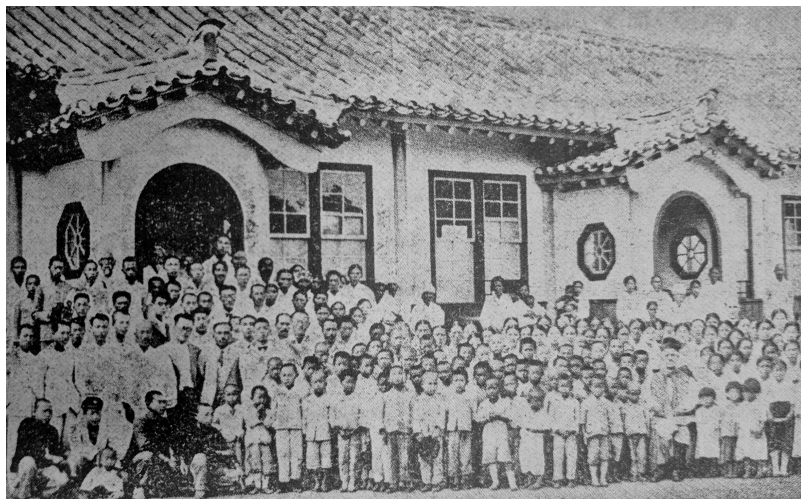
안주읍은 평안남도의 서북쪽 끝 청천강 하류 남쪽 기슭의 평안남북도 경계에 위치한 도시로서 아담하고 깨끗하며 ‘제 2의 평양’이라고도 불렸다. 안주 지방은 종교적 분포로 볼 때 개신교와 천도교의 비중이 단연 우세한 지방으로 천주교는 이들 종교보다 30년 후에 진출하여 그 역사가 짧다. 순교록에 의하면 안주 태생 김자당(안토니오) 내외가 서울로 압송되어 양화진에서 참수 순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30년 9월 30일 안주읍에 본당이 설정되어 북문리에 연와조 형식의 사제관 겸 임시 성당을 신축하였고, 1933년에 목조와 한식 기와지붕 구조의 성당을 건축하였다. 안주 본



당에서는 멀리 펼쳐져 있는 영변 평야가 바라다보이고 백상루(百鮮樓)라는 아름다운 누각이 뒷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수녀들의 활동과 철수:** 수녀들은 각종 신심 단체 지도와 주일 학교, 예비자 교리 등의 활동을 하였다. 사제관 살림을 하던 할머니가 별세한 다음에는 얼마 동안 그 일까지 맡아 분주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빈민 아동을 위해 성모학원에서 국민 학교 1, 2학년 과정을 지도하였다. 수녀들이 주일학교를 지도 하면서 우리말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일본 경찰들에게 시달린 적도 있었으나 신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단결로 무사하였다.



안주 본당과 신자 일동(1937)

천여 명의 신자들은 빈부의 차이가 별로 없었으며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회장 10명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는 본당 신부를 도와 자치적으로 본당을 운영하여 일찍부터 평신도 사도직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며 청년회와 부인회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자 활동적이며 부지런한 김동철(마르코 O.S.B.) 신부는 교회 안에서 우리말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정규 학교가 무색할 정도였다. 1946년 10월 후임으로 김충무(클레멘스) 신부가 부임하였다.

1947년 12월 15일 본당 신부와의 의견 충돌로 안주 분원은 폐쇄되고 수녀들은 12월 17일 성탄 9일 기도를 시작하는 날 서포 본원으로 왔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은 미끄러웠고 청천강에서 불어오는 맵고 차가운 눈보라는 분원을 폐쇄하고 돌아가는 수녀들의 울적한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였다. 안주 분원은 본회가 평양교구에 설치했던 9개 분원 중 유일하게 도중에 폐쇄한 분원이었다.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401-402쪽;  
『천주교평양교구사』(1981), 435-437쪽 참조



## 비현 본당

(1911-1950)

- ▶초대 본당 신부: 김윤근(요셉)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분원 설치: 1940년 7월-1950년  
(1945년 9월 11일 분원 폐쇄, 1949년 8월 재파견)
- ▶첫 파견 수녀: 서원석 요셉, 김영연 소피아

경의선 열차를 타고 평북 지방을 달리면 종착역인 신의주에 닿기 1시간 전 교통의 요지인 비현에 이른다. 북쪽에는 삼교천이 흐르고 동남쪽에는 천두산이 있는가 하면 남서쪽에는 용천평야가 펼쳐진다. 옛날에는 임산물과 농산물의 집산지일 뿐 아니라 축산물로도 유명했다.

수녀원은 성당 왼편 언덕 밑에 있는 방 2칸짜리 초가집이

었다. 초가집 처마 높이만큼 나무판자로 울타리를 해서 사람들은 교도소 같다고도 했다. 비현 본원은 1945년 9월 철수하였다가 1949년 8월 27일 다시 파견되었다.

**수녀들의 활동과 철수:** 본당 신부를 도와 수녀들은 전교 활동과 신심 단체 지도 등을 하였다. 1941년부터 가톨릭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평신도를 대상으로 교리 강습회를 열고 전교 활동에 분발할 것을 다짐하는 등 한창 발전하던 비현 본당도 태평양 전쟁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교회 활동은 꾸준하였고, 신심 생활은 더욱 충실해졌다.



비현 지방은 북한 공산당의 정치적 활동이 활발하던 곳이기도 하였으나, 수녀들은 교리 지도와 냉담자 면담 등으로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비현 본당 신자들은 신부와 수녀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청년들은 사제관을 지키고 여교우들은 수녀원을 자주 찾는 등 온 힘을 기울였다. 긴장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1949년 성탄절에는 15명이 성세성사를 받았다.



1950년 5월 14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가 공산당에게서 포 본원을 압수당하고 일시 해산할 때 이승진 아네 수녀의 본가는 중화에 있었지만, 본가가 비현인 고은주 비안네 수녀와 함께 아직 본당 신부가 있던 비현 본당을 지키기 위해 평북을 하고 돌아왔다. 수녀들의 평북 차림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멀리서 쳐다보고 가는 사람, 혹은 “수녀님!” 하고 우는 사람,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 등등 모두 섭섭해하였다.

1950년 6월 27일 김동철 본당 신부가 영원한 도움의 성모 기념 미사를 봉헌하였고, 고 비안네 수녀, 이 아네 수녀와 비현 본당 신자들이 본회 수녀들과 북한에 있는 모든 신자를 대표하여 미사에 참례하였는데 이것이 마지막 미사였다. 이날 김동철 신부가 체포됨으로써 평양교구는 한 사람의 목자도 없는 침묵의 교회가 되었다.

본당 신부가 잡혀간 후에도 수녀들은 본당에 남아 1950년 7월 10일까지 신자들을 보살폈으나 더는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 고 비안네 수녀는 비현에 있는 본가로 가고, 이 아네 수녀는 비현을 떠나 본가가 있는 중화로 떠났다. 그 후 고 비안네 수녀의 소식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391-394쪽 참조



◀ 진사동 본당  
▼ 마전동 본당



## 신의주(진사동) 본당과 마전동 본당 (1922-1949)

- ▶ 초대 신의주 본당 신부: 박정렬(바오로)
- ▶ 초대 마전동 본당 신부: 마(Reginald Markham M.M.)
-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분원 설치: 1940년 8월 마전동 분원 신설, 1942년 진사동 본당으로 이전하여 분원 설치-1949년
- ▶ 첫 파견 수녀: 오귀봉 다위, 이금주 양네스(마전동 본당), 김영연 소피아, 박현선 데레시다(진사동 본당 성모의원)

신의주는 압록강 하류 좌측 연안에 위치한 국경 도시로서 944미터의 압록강 대철교를 건너면 만주 안동에 닿는다. 본시 구릉지로 북쪽의 압록강과 남쪽의 삼교천의 탁류가 합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갈대밭이었다.



진사동 본당

**\* 진사동 본당:** 1922년 신의주 본당이 설정되었고, 1923년 평양교구 설정을 위해 메리놀 선교사들이 진출할 때 신의주에 자리를 잡았다. 교우 수가 증가하자 신의주시 진사동에 새로 이 부지를 마련하고 한식·양식 절충식 성당을 신축하여 1930년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성당 뒤편에는 성모의원을 신축하여 메리놀 수녀들이 오전에는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진료하고 오후에는 병원을 찾아오는 외래 환자를 돌보았다.

**\* 마전동 본당:** 평양교구는 신의주 지방의 장래성과 날로 확산하는 교세에 힘입어 진사동에 위치한 신의주 본당에서 1939년 마전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 외곽 지대와 1937년에 설립된

성심학교를 포함하여 마전동 본당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던 날 진사동과 마전동 본당의 성직자와 수도자가 전원 감금을 당했다.

1942년 6월 1일 진사동 사제관에 감금되어 있던 평북의 메리놀회 신부 전원이 미국으로 송환되어 신의주를 떠난 이후 신의주 본당과 통합되었다. 이보다 앞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마전동 분원은 1942년 4월 28일 진사동으로 이전하여 진사동 분원을 설치하였다.

**수녀들의 활동과 철수:** 메리놀회 신부들의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던 마전동 본당과 성심학교는 한국인 수녀들을 맞아 더욱



마전동 본당



활기를 띠었다. 수녀들은 학교, 교리 지도, 성가대 지도, 주일 학교 등을 맡아 바쁘게 소임을 수행하였다.

1941년 신의주에 있던 메리놀회 신부와 수녀 전원이 진사동 본당 사제관에 연금될 때 오 다위 수녀와 이 앙네스 수녀는 마전동 분원에 한 달가량 연금되었다. 1942년 분원이 진사동으로 이전하자 마전동 성심학교에는 매일 출퇴근하였으며 메리놀회 수녀들이 봉사하던 진사동 본당의 성모의원에는 새로 김 소피아 수녀와 박현선 데레시다 수녀가 파견되어 약방과 간호 업무를 맡았다. 이때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많지 않아 매일 의사에게 간호학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1949년 성당, 사제관 등 부속 건물 일체를 공산정권에 몰수당하고,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흥건항(갈리스토) 신부가 연행되었다. 목자 없는 교회를 지키고 있던 수녀들은 당국의 명령으로 수녀원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성당과 분원의 살림살이를 교우에게 부탁하였다. 이 데레사 수녀는 철산 본가로, 황 카타리나 수녀는 중화 본가로, 김 글로리아 수녀와 장 임마쿨라따 수녀는 신의주 본가로 떠났다. 그 후 6.25 전쟁이 발발했고 북쪽 끝 신의주에 남은 수녀들의 소식은 듣지도 못하고, 남하 소식도 전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헤어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394-397쪽;  
『천주교평양교구사』(1981), 459-475쪽 참조



## 의주 본당 (1911-1950)

- ▶ 초대 본당 신부: 서병익(바오로)
-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분원 설치: 1945년 4월-1950년
- ▶ 첫 파견 수녀: 박현선 데레시다, 홍명선 글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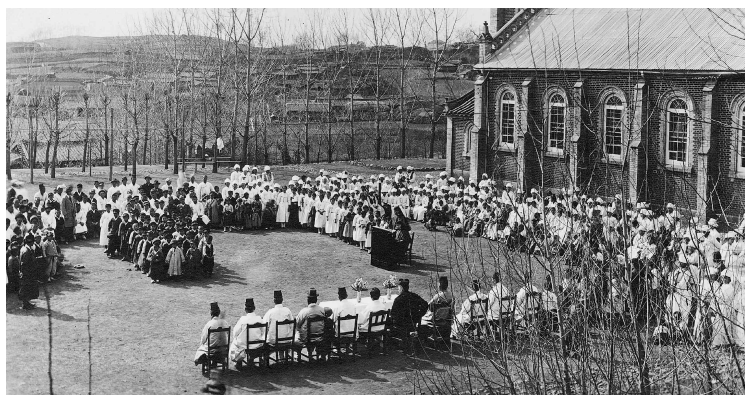
한반도 서북쪽 끝에 위치한 의주는 압록강을 국경으로 왼쪽 기슭에서 만주와 대치한 국경의 요새지이며, 신의주가 생기기 전에는 만주와 접한 우리나라의 국경 도시였다. 조선 왕조 중엽부터 의주는 한국 천주 교회사와 깊은 인연을 가진 곳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주 변문을 통하여 들어왔고, 조선



의주 변문



교구 제2대 앵베르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조선에 첫발을 디딘 곳이며,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의 발자취가 남은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 신자들이 북경을 내왕하던 통로로서 의주는 한국 천주교의 성지라 할 만큼 유서 깊은 곳이며 역사적 고적이 많은 곳이다.



1911년 남문동에 한식의 임시 성당을 마련하였다. 재고개의 언덕에 대지 2만 평을 매입하고 1918년 성당 신축을 시작하여 1919년 10월 9일 준공식과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벽돌조, 목조 트러스 구조, 한식 기와지붕의 종탑을 지닌 형태로, 붉은색과 회색 벽돌이 사용되었고, 총공사비 1만여 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수녀들의 활동과 철수:** 메리놀회 수녀들이 1941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감금될 때까지 고아원과 시약소를 설치하여 자선 사업을 하였으며 전교 활동과 신심 단체 지도 등 많은 활약을 하던 이곳에서 본회 수녀들이 맡은 일은 양로원 운영과 본당 일이며 주로 성가대 지도, 교리 지도, 신심 단체 지도 등이었다. 신자 수는 천 오백여 명이었다.

교회 부속사업체였던 해성학교, 유치원 등은 폐쇄되고, 노인 20여 명이 거주하던 양로원만 남아 있었다. 양로원 보조 농경지의 모든 소출은 공출당하고 소량의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는 실정이어서 영양 부족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여럿이었다.

신자 수도 많았지만 신자들이 열심하고 진실하기로 유명했다. 신부나 수녀들에 대한 사랑도 컸다. 해마다 복자 성월이 되면 의주 본당에서는 변문을 찾아가 복자 성월 기도와 복자 찬가를 부르는 등 순교자 현양 행사를 하였다. 변문은 허술한 문짝으로 되어 있으며 달구지가 통행할 정도의 너비였다.

1950년 6월 25일 김교명(베네딕토) 본당 신부는 한마디 반항도 없이 순교자적 정신으로 체포되어 갔다. 마지막까지 평복을 하고 본당을 지키던 주 엘리사벳 수녀와 홍 글라라 수녀는 신부가 잡혀간 후 감실에 모셔져 있던 성체를 영하고 성작과 성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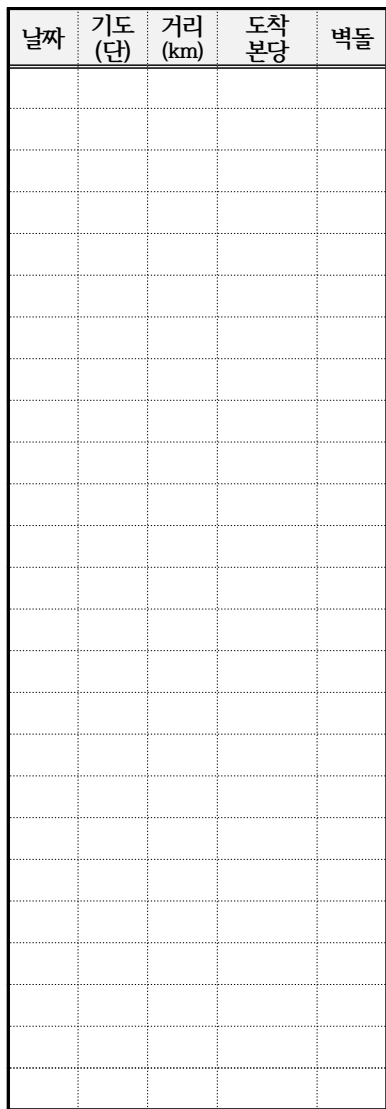


양로원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게 되어 몇몇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를 서둘렀다. 노인들은 차라리 죽여 달라고 애원하며 죽지 않은 것이 원수라고 하면서 목 놓아 울었고, 수녀원에서는 여교우들이 울고 있었다. 수녀원과 양로원을 정리하고 서울이 본가인 주인숙 엘리사벳 수녀는 교우 김 안젤라 집으로, 홍 글라라 수녀는 강서 본가로 갔다. 그 후 교통도 두절되고 전세가 불리하게 되어 주 엘리사벳 수녀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 다행히 홍 글라라 수녀는 본원과 연락이 닿아 남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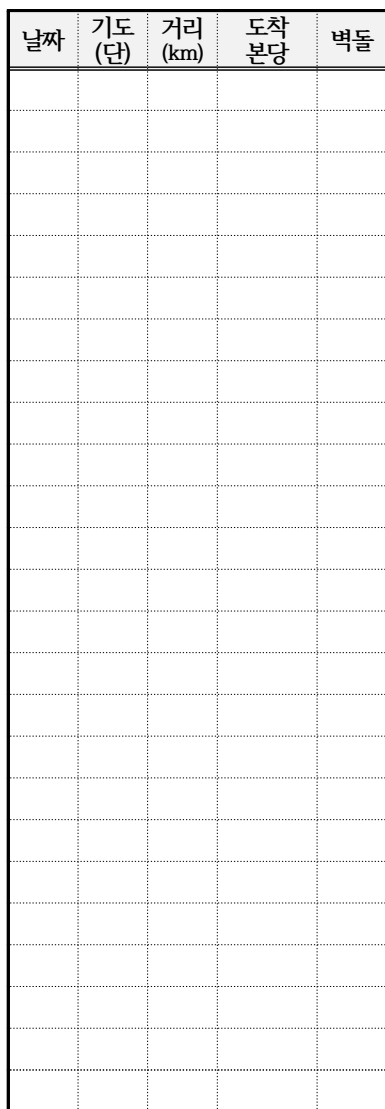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녀회 50년사』(1983), 406-408쪽;  
『천주교평양교구사』(1981), 476-480쪽 참조

#### IV. 기도 여정

[illegible][illegible]

50



5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02706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02)2171-1500

<https://www.solph.or.kr>